

광주, 문대통령 인기 '묻지마 1번'...전남, 평화당 존재 과시

민주 5개 구청·의회 압승

전남 기초자치단체장

평화 4곳·무소속 6곳 우세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을 '씩씩이' 하며 사실상 광주에서는 완승을 거뒀다.

반면 전남에서는 13일 자정 현재 서남부 권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최소 7곳에서 최대 10곳 자치단체장은 비(非)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는 '씩씩이' 당내 경선과 정에서 상호비방, 네거티브 등이 상당하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공천 잡음도 상당해 비(非)민주당 후보들의 선전도 예상됐지만, 광주지역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결국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했다.

이날 광주·전남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보인 탓에 인물보다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애초 선거 초반부터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의 당선을 비롯, 구정장 선거에서도 임택 동구정장 후보, 서대석 서구정장 후보, 김병래 남구정장 후보, 문인 북구정장 후보, 김삼호 광산구정장 후보들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광주 동구청장·서구청장 선거에서는 현직 구정장인 평화당 김성환 후보와 무소속 임우진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에 맞섰지만, 이들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광주시와 광주지역 5개 구청은 모두 민주당 후보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장을 맞게 됐다.

시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 대부분이 앞서면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민중당 후보들을 압도했다. 이는 역대 선거와 달리 광주·전남에서의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에 힘입어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중 대부분이 바른미래당(3명)과 민주당(4명)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지역적 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과거 지방선거에서 약진했던 진보정당 소속 후보들도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의회 진출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선거에까지 '묻지마 1번 투표'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텃밭에서는 '역시 쫓으면 된다'는 식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은 평화당·무소속 돌풍-전남 서남부권 중심으로 평화당과 무소속 돌풍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평화당은 목포시장 선거와 고흥·함평군수 선거 등 4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목포는 평화당 박홍률 후보가 민주당 김중식 후보와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고, 해남은 명현관 후보가 고흥은 송귀근 후보가, 함평은 이운행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 바람도 거셴다. 광양에서는 무소속 정현복 후보가 민주당 김재무 후보를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고, 장성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유두석 후보가 3선 당선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수에서는 무소속 권오봉 후보가 민주당 권세도 후보를 박빙의 차이로 앞서고 있다.

신안에서는 무소속 박우량 후보가, 장흥에서는 정종순 후보가 민주당 등 다른 정당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이저택 선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전남의 경우 광주와 달리 지역색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평화당이 전남 서남부권을 전라지역으로 보고 선거운동기간 집중 유세를 벌여온 것도 평화당 후보들이 약진한 원인으로 꼽힌다. 당선이 유력시 되는 무소속 후보들은 광양과 장성은 현직 시장과 군수라는 점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무소속 후보들은 지역 배덕 민심을 그동안 잘 다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한국당 희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왼쪽),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오후 각당 대표상황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대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서울시장 3위 충격...홍준표 사퇴 시사

민주당 단체장·국회의원 압승

보수 통합 추진 가능성

평화당, 민주와 연정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씩씩이'가 현실화 되면서 야권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데다 미니 총선 수준의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진행되면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

일단 여권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개혁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초상집 분위기다. 한국당은 민심 변화와 '숨은 표' 효과 등으로 영남권을 사수하고 전국적으로 6~7곳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무위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선거 참패 책임론으

로 인한 내용에 휩싸이면서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네 단어의 영어 문장을 올렸다. 이는 지방선거 참패 결과에 책임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바른미래당 역시 충격적인 결과에 직면했다.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등 모두 29곳 가운데 단 한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호남 등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완패가 확실해 보인다. 특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김문수 한국당 후보에게도 밀려 3위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충격은 더 크다.

이에 따라 보수 세력 재편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수 통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극심한 내홍에 빠질 수 있다.

민주당의 성적표도 초라하다. 하지

만 전남과 전북의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거센 문풍(문재인 바람)속에서 선전하거나 승리를 거둬 정치적 존립의 근거는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연대 및 연정, 나아가 합당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119석인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10석~11곳 승리가 가능. 129~130석까지 의석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우호적 성향을 보여준 민주당·정의당(20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석) 등과 협력할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은 은근히 보수 재편을 바라보고 있다. 통합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이 반대하고 탈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호남 지역구 의원은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김광영, 권은희 의원 등 5명이다. 14석을 가진 평화당으로서는 이들 5명이 합류하면 19석을 확보하게 되며 무소속의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합류한다면 정의당 없이도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내년 총선까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이 탈당한다 하더라도 민평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이 찢기 때문이다. 탈당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남아 정치 지형변화를 보며 후일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평당의 연정, 통합도 쉽지 않은 전망이다. 당장,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호남지역 지역위원장들의 집단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통합 등을 통해 국회 과반을 확보해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 등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야권발 정계개편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지방선거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민평당과의 합당 등 민주당의 여권발 정계개편은 21대 총선 6개월 이전인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원구성 협상부터...6월 임시국회 가동되나

6월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13일 사실상 2주간 멈춰섰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선거 지원유세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개정휴업' 상태에 놓였던 6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으로 다시 가동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의 압승으로 원내 1당 지위를

더욱 확고히 했으나 여소야대지형은 유지돼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 구성 협상은 여야에 던져진 시급한 과제다.

지난달 국회 지도부 공백 상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